

■ 대구신문 2010년 1월 14일

<르포> 대구 쪽방촌 사람들의 삶

대구역 뒤편 1천여가구...전기장판 하나로 겨울나 / 무료급식서 끼니 떼우고 아파도 돈없어
병원 못가



<사진:대구역 뒤편 칠성
2가 쪽방촌에 있는 김
순옥씨의 거처>

14일 오후 1시 대구역
뒤편 칠성2가 쪽방촌
일대는 혹독한 추위와

매서운 바람이 햇빛의 온기마저 삼켰다. 이곳은 재개발 지역으로 대구의 대표적인 쪽방촌이다. 대부분 집주인은 이사를 가고 세입자들만 남아있다.

이들 중 100여가구가 흔히 말하는 ‘쪽방’가구다. 낡은 집들 사이에 있는 폐가의 ‘철거’란 붉은 스프레이 글씨가 이곳 분위기를 더욱 을씨년스럽게 만들었다.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추운 쪽방을 피해 대구역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계속되는 한파가 ‘쪽방촌’ 사람들의 겨울나기를 더욱 힘겹게 하고 있다. 최근까지 노숙생활을 하다 (사)대구쪽방상담소의 도움으로 칠성동 쪽방촌에 정착한 손태식(58)씨. 손씨가 생활하는 허름한 한옥에는 그를 포함해 모두 4명이 방 한 칸씩을 빌려 쓰고 있다.

이들은 합판으로 만들어진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가스도 들어오지 않아 휴대용 가스레인을 쓰고 있다. 손씨는 “최근 한파로 수도가 동파 돼 아침부터 조금씩 흐르는 물을 받아 사용한다”고 말했다.

다닥다닥 붙은 방으로 들어가자 6.6㎡ 남짓한 손씨의 보금자리가 보였다. 벽으로 스며드는 바람을 막기 위해 모포로 벽 전체를 덮었지만 온기는 없었다. TV도 없고 라디오로 세상소식을 접한다.

손씨는 고혈압과 당뇨가 심해 시력마저 잃어가고 있다.

다행히 (사)대구쪽방상담소의 도움으로 무료로 당뇨와 고혈압 약을 받지만 안구 수술은 엄두도 못 낸다.

대구쪽방상담소 장민철 사무국장은 “손씨의 시력이 갈수록 나빠져 하루 빨리 검사를 받고 수술을 해야 한다”며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쪽방 주민들은 번개시장과 남산시장, 역 주변 무료급식소에서 점심, 저녁을 해결한다. 그마저도 밀려드는 사람들로 허탕 치는 때가 잦다.

칠성2가 골목길 끝자락 쪽방에 사는 김순옥(가명·여·55)씨의 세간은 급식소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가져오는 냄비와 숟가락 등이 전부다.

김씨는 “끼니는 봉사단체의 도움으로 겨우 해결하고 있지만 추위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올 겨울나기가 걱정”이라며 “전기장관에 의지하는데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쪽방촌 사람들은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해 주로 전기장관에 의지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장 사무국장은 “쪽방촌 주민들이 사용하는 전기장판들은 대부분 낡아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 며칠 안으로 칠성동 쪽방촌에 새 전기장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에는 약 1천여 쪽방가구가 있다. 그중 20%는 손씨처럼 방세가 저렴한 주택형 쪽방에 살고 있다. 방세가 주택형보다 5만원정도 비싼 여인숙은 이불과 난방이 제공되지만 주택형 쪽방은 스스로 마련해야 돼 사정이 더욱 어렵다.

전기장판 한 장으로 겨울을 버텨야 하는 쪽방촌의 바람이 더욱 매섭게 느껴졌다.

김종협기자